

## 얼굴을 한 사람

비 내리는 날, 한해에 두어 번 여행을 함께 떠나는 벗이 있다. 시골에 내려와 사귀 동갑내기 송석봉이다. 밭농사도 짓지만 농사꾼이니랄까 봐 논이라면 사족을 못쓴다. 논이 나왔다는 소리만 들으면 제격 계약을 해대는 바람에 늙은 어머니의 가슴을 철렁이게 만들기 일쑤다. 누군가 철원에 논이 싸게 나왔다고 귀뜸을 해주자 앞 뒤 안 재고 그 멀리까지 한달음에 달려갔다. 산중턱에서 마을로 죽 뺀 논은 좋이 3만 평도 넘어 보였다. 아무리 헐값이라지만 몇 억은 왔다갔다하는 엄청난 돈이었다. 그 드넓은 논을 굽어보며 이곳으로 이사와서 논농사를 지으며 살고 싶다고 그는 군침을 삼켰다. 하지만 결국 그 논을 사지는 못했다.

송석봉하고 1톤 트럭에 몸을 싣고 여행을 함께 다니기 시작한 건 서너 해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사이에 해인사, 통도사, 운문사, 경주, 지리산 화엄사, 쌍계사를 비롯해서 속리산 범주사, 영월 범흥사, 화성 용주사로 두루두루 돌아다녔다. 이게 다 하루에 다녀온 나들이 길이다. 심지어 새벽 5시에 떠나서 광주, 담양, 소쇄원, 송광사, 벌교 낙안읍성, 울포바닷가, 보성 차밭을 하루에 돈 적도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여행이라는 게 아침에 가서 밤늦게 돌아오는 하루 짜리다.

### 천상 농사꾼 송석봉

‘오늘처럼 살아본 적이 없어.’

어느 여행길에서였던가. 송석봉의 입에서 불쑥 나온 말이다. 사람이 이렇게도 사냐고, 별천지가 따로 없다고 감탄했다. 여태껏 살면서 관광이라고는 떠나본 적이 없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언제나 관광이라는 말을 즐겨 쓴다. 앞으로는 일만하지 말고 구경도 다녀야겠다고, 사는 맛에 새로 눈을 뜬 송석봉은 7남매의

장남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중학교를 중퇴한 그는 직업훈련소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의 회사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머니 혼자 농사를 감당하기에는 버거웠고, 공장 생활 두 해만에 그는 농사꾼의 길로 접어들었다. 바로 아래 남동생이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동생들이 줄줄이 대학을 마치고 결혼하는 날까지, 송석봉은 오직 맏이로서 어머니를 도와 형제들 뒷바라지에 혼신을 다 했다.

지난번에는 속리산에 갔는데, 느닷없이 어머니의 지팡이를 나더러 사달라고 했다. 노인들의 지팡이는 남들이 사줘야 뚝뚝은 거라면서, 자신은 장모 것을 살테니, 나더러 어머니 지팡이를 사달라는 거였다. 땅 옥심이 앞선 나머지 눈을 덜컥덜컥 사는 버릇만 추스른다면 그는 나무랄 데 없는 효자다.

송석봉은 타고나기를 남에게 해코지를 못한다. 그의 집 뒤 솔밭에는 남이 쓴 무덤이 들어와 있다. 하필이면 그 무덤 가운데 하나가 이웃의 밭과 송석봉의 밭 경계에 자리잡았다. 그리고 그의 밭과 붙은 밭의 주인이 그 무덤의 후손이었다. 현대, 그 무덤을 옮기는 과정에서 송석봉은 상처를 입고 말았다. 후손들이 무덤을 이장한다면 송석봉에게 자기들 밭을 억지로 떠맡기다시피 했다. 그건 경우가 아니었다. 조상을 떠받드는 잣대를 들이대자면, 그 후손들이 송석봉의 밭을 사서 무덤을 모시는 게 순리였다. 사정이 그런데도 그들은 형제 사이에 밭을 팔아서 서로 돈을 챙기겠다며 막무가내로 버텼고, 마침내 송석봉은 울며겨자먹기로 없는 돈에 내키지도 않은 밭을 사고 말았다. 그들 형제가 꽤냈지만 어머니의 무덤을 가지고 떼를 쓰는 이들을 송석봉은 도리어 안쓰럽게 여길 따름이었다. 물론, 농협에서 빚을 또 냈으니 그의 속이 오죽 하겠는가.



### 팍팍한 살림에 시작한 조경일

농사만 짓던 송석봉이 재작년 겨울부터 조경일을 다닌다. 큰놈이 중학교에 들어가자 농사만으로는 도저히 자식들을 못 가르치겠기에 어렵사리 결단을 내린 거였다. 그는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두 아들의 가장이다. 조만간 쌀을 수입할 건 뻔한 노릇이고, 그 좋아하는 논만 가지고는 먹고살 길이 막막했기에 고심 끝에 고른 길이었다. 한겨울 남 밑에서 일을 배우던 그가 이듬해 봄부터는 일감을 스스로 맡게 되었다. 워낙 부지런하고 성실하다보니 누군들 그에게 일을 맡기지 않으랴! 그가 그토록 의지했던 쌀이 조경이라는 낯선 직업으로 내몬 셈인데, 그는 적성에 맞는다고 좋아한다. 비가 내리면 모를까, 그는 거의 쉬지 않고 일을 나간다.

농사꾼 송석봉이 모내기철에만 논두렁에 들어가는 희한한 신세로 바뀌고 말았다. 일꾼을 10명쯤 데리고 다니면서 고속도로 휴게소에 나무 심기, 신축 아파트 조경, 농장 가꾸는 일에 매달린다. 10일에서 때로는 석 달까지 이른 아침부터 몸을 놀린다. 조경일을 하면서도 그의 성격은 달라지지 않았다. 언젠가 하청업체가 일주일쯤 임금을 미루자 그는 속이 타서 어쩔 줄을 몰라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사람들인데, 돈이 밀려서 어떻게 하나고 입술이 바짝 타기까지 했다. 연신 전화를 해대는 그에게 사업이라는 게 그럴 때도 있는 법이니, 느긋해지라고 해도 천상 농사꾼 송석봉은 임금을 못 주는 게 자기 책임만 같아서 낯을 들 수 없다고, 안절부절못했다. 말하자면 그는 반장인 셈인데, 다른 데보다는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일꾼들에게 일당 5천 원을 더 준다. 그래야 속이 편하다.

카드빚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여대생을 납치살인하고, 어린이를 유괴하는 사건이 날마다 신문을 장식하고 있다. 바야흐로 돈을 움켜쥐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서슴지 않는 인간들로 넘쳐나는 세상이다. 끔찍하지만 이게 오늘을 사는 우리의 현실이다. 사람 얼굴을 한 사람을 만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게 우리가 꾸린 이 사회다.

조경일을 다니면서 몸은 고되지만 송석봉은 마음이 편하다. 한 달에 50만 원씩 아내에게 생활비를 줄 수 있음을 몹시 흐뭇해한다. 조경일을 해서 버는 나머지

돈은 농협에서 꾸 돈을 갚는 데 몽땅 들어간다. 앞으로 2,3년만 착실히 벌면 숨통을 톨 수 있을 터이다. 농사꾼이 논농사가 가뭄일이 되어버린 게 한편으로는 한심스럽기도 하지만 빛이라는 짐을 덜자면 어쩔 수가 없다. 올해 2월, 수원에서 일을 하던 송석봉이 그 답지 않게 허리가 쑤신다고 허허거렸다. 수십 억 재산을 가진 농장의 조경 작업인데 주인이 어찌나 몰아치는지 군대 유격 훈련 저리가라라고 혀를 내둘렀다. 농사일이다 조경일이다 해서 눈코 뜰 새 없는 세월을 보내는 송석봉은 산에다 나무와 꽃을 가꾸며 살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다.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그곳에서 대접할 수 있으면 더 바랄 게 없다는 그다. 나 또한 언젠가 손님이 되기로 약속한지 오래다.

아, 사람 얼굴이로구나!

농사꾼 송석봉은 얼마 전에 쪼들리다 못해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논 예닐곱 마지기를 떼다 팔았다. 그로서는 몹시 고통스러운 결정이었다. 송석봉은 벼락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다. 흙구덩이에서 허구한 날 일 하다가, 비라도 내리면 남해 보리암이나 해남 대흥사로 바람을 쐬러 떠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어느 가을, 남녘을 여행할 때다. 해남 미항사를 둘러보고 터덜터덜 혼자 걷는데, 탈곡할 벼를 가득 실은 경운기가 지나가며 타기를 권했다. 30대 중반의 청년들이었다. 거뭇한 낫이며, 농사꾼만이 지을 수 있는 순박하기 그지없는 웃음이 아, 사람 얼굴이로구나, 하는 탄성이 절로 나왔다. 참으로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 얼굴이었다. 오늘 나는 송석봉에게서 그 얼굴을 다시 본다. 아울러 사람 얼굴을 한 사람이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 세상이기를 빌어본다.



**윤동수**

1960년생

1990년 '사상문예운동', '새벽길' 발표

2003년 '실천문학 여름호', '식육식당' 발표